

정기명 여수시장, 민생 현장 소통 행보 재개

LOCAL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일환...건의사항 청취·현안 논의 2022년 8월부터 32회...2200여명 만나 민원 47건 접수

정기명 여수시장이 그간 대선 등으로 중단됐던 소통 행보를 재개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기명 시장은 최근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일환으로 예술마루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라는 정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회를 진행해 2200여 명과 소통했으며, 4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회를 진행해 2200여 명과 소통했으며, 4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주로 시민의 삶과 관련된 민생현장이나 지역 정점 현안지 등을 방문해 격의 없는 대화로 진행되며, ‘시민과의 소통 정례화’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었다'라는 정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회를 진행해 2200여 명과 소통했으며, 4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정기명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회를 진행해 2200여 명과 소통했으며, 4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일환으로 금호석유화학을 방문했다.

동자, 의료인, 장애인, 노인 등 다양했으며, 건의사항은 거문도 여객선 증설과 공정 시장이 만난 시민들은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를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 택배 노

생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접수된 민원은 정 시장이 국·과장들과 함께 현장실사 후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 챙기고 있다.

현재 접수 민원 47건 가운데 27건을 해결했으며, 남은 20건도 법적불가나 관련 지침 위반 등 9건을 제외한 11건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민생현장에서 만난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시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소통행정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단 위기 극복 지원책 마련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삼박람회 성공개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함평농기센터, 농업혁신 선도 미생물-키오스크-ASTIS 연계

함평군이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의 선도 지자체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의 2025년 전국 5대 거점기관 중 하나로 선정됐다.

ASTIS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업기술정보 통합플랫폼으로 토양 검정, 병해충 진단, 유용 미생물 보급 등 다양한 과학영농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농업인에게 맞춤형 기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군은 지난 2023년 ASTIS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대상, 지난해는 운영 확대 표창을 수상하며 ASTIS 활용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올해에는 ‘미생물-키오스크-ASTIS 연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거점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모델은 미생물 키오스크 운영 자료를 ASTIS와 자동 연계해 농가별 이력 관리, 실적 분석, 맞춤형 현장 지도에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만족도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크게 향상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과학영농과 현장 기술지도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농촌지도 선도 모델을 구축하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함평=최윤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화순, 민간관광안내소 10곳 선정 카페·음식점·숙박시설 등 구성

화순문화관광재단은 민간관광안내소로 총 10개소를 최종 선정하고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상권과 연계된 관광 정보 허브를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개 민간관광안내소는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됐다. 민간관광안내소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홍보물 전달대 설치, 화순군 관광홍보비 비치, 관광 정보 제공 등 안내 기능을 수행한다.

재단은 안내소 운영자에게 운영 관련 매뉴얼 제공, 주기적인 관광홍보물 제공, 홍보 콘텐츠 제작·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민간관광안내소를 기반으로 한 연계 프로그램과 관광 네트워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순천, 폭우·태풍 대비 선제 대응

도로변 빗물받이·우수맨홀 등 점검 완료

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변 빗물받이와 우수도 맨홀 등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난 양상이 대규모, 다양화, 복잡화 됨에 따라 안전관리 실패 점검과 풍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3만개소를 점검하고 준설이 필요한 2만개소에 대해 준설을 완료했으며, 상습침수구역 374개소에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했

다. 또 우수맨홀 3000개소 등의 전수점검과 사전 준설작업을 마쳤다. 노관구 시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의 퇴적물과 나무뿌리 제거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 중이며,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마을지킴이 등과 민간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노관구 순천시장을 비롯한 순천시 관계자들이 중앙로에서 하수 맨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담양국립정원문화원, 민간 활성화 방안 모색

정원진흥 학술세미나 성료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5 정원진흥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국립정원문화원 대강의실에서 진행됐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세미나에는 국립정원문화원,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정원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과 민간 중심의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국립정원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주제 발표는 정원 정책과 공공정원의 역할을 통한 지역 활성화, 국립정원문화원의 기능을 활용한 민간 활성화 전략, K

-컬처 기반의 ‘K-가든’ 브랜드화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정섭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K-디롤링(K-Deroll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K-디롤링은 개인별 성향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휴식을 제공하는 정원 공간 개념으로, ‘사람마다 맞는 최대의 휴식’을 중심 철학으로 한다.

국립정원문화원은 담양군 금성면에 약 7ha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임시 개원해 시범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중에는 담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원 체험 교육과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직자의 정원문화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담양=조성용 기자

고흥, 간척지 대체작물 실증재배 착수

장립종 벼·원예작물 등 고소득 작물 발굴

고흥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응해 고흥만 간척지에서 벼 대체작물 실증재배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실시한 ‘고흥만 간척지 대체 유망작물 발굴 및 육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에 적합한 대체작물의 생육 특성과 수익성을 검토하고, 실제 농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실증재배는 원예작물 8종과 장립종 벼 11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예작물 시험은 2692㎡ 규모의 시험포장에서 이뤄지며, 단호박·배추·옥수수·참깨·들깨·시금치·감자·콩 등이 정식 또는 파종됐다.

시험 조건은 고흥만 해수와 지하수를 관계수원으로 활용하고, 토양은 왕겨 및 폐유기배지를 혼합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눠 비교 평가한다.

장립종 벼는 향미1호, 향미2호 등 11개 품종을 고흥만 간척지 1.5ha에 이양해 재배 중이다.

장립종 벼는 세계 쌀 시장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주요 품종으로, 최근 국내 쌀 소비 다양화와 동남아 출신 이주민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외식·가공용 수요처를 겨냥해 대체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실증 기간 동안 각 작물의 생육 상태, 수량성, 토양 염농도 변화를 면밀히 조사해 재배 적합성과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증재배를 통해 간척지 환경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실제 농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소상공인지원재단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design
다큐디자인 **DOCU**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